



여수시내와 돌산을 잇는 거북선대교와 여수도심이 가을밤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뽐내고 있다.

〈여수시 제공〉

다시, 여수밤바다... 1천만 찾았다

코로나 이후 3년만에 관광객 1033만명... 20~30대 대폭 증가 음식점·관광업소 불친절·가격인상·교통난 등 대책 마련 시급

전남의 대표 관광도시인 여수가 일찍이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관광객 1000만 명이 다녀간 여수는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20~30대 방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주요 관광지점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10월 말 기준 103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872만 명, 2021년 977만 명이 3년 만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여수 관광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광 성수기인 7~8월 여름 휴가철에만 258만 명이 방문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3만 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츠의 '2022 여름휴가 여행률과 여행지' 분석에 따르면 여수시의 여름휴가지 점유율은 전국에서 5번째로 작년보다 1계단 상승했다. 언론사와 카드사가 내놓은 '빅데이터로 본 휴가지도' 분석에서는 젊은 층의 관광객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9년과 비교해 올해 7월 여수를 찾은 20대는 36.3%, 30대는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의 요인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낭만밤바다 ▲고급형 숙박시설 증가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 ▲시민과 함께 만든 안심관광지 인식 등을 꼽았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여수의 대표축제인 '거북선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여수밤바다 불꽃축

제', '여자만 갯벌노을체험' 등 다채로운 축제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인 '짜복짜복 낭도', 테마여행 10선 '캠핑대전'도 인기가 높았고, 여수섬섬길 개통에 따른 '섬마를 너울길' 조성, '더섬 힐링센터' 운영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도 여수관광의 만족도를 높였다. 여기에 여수시에서 운영한 '관광종합대책반', 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조직'도 각종 불편사항 해소와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며 관광객 증가에 큰 몫을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물가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으로 언제든 관광산업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친절서비스와 합리적인 숙박요금, 청결한 음식문화 조성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녹차향...국화향 보성군, 14일까지 붓재 카페서 국화 분재전

다채로운 국화분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보성군은 오는 14일까지 보성군 붓재에서 보성군국화연구회(회장 진아라) 주관으로 '제10회 보배성 시월 국화 분재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붓재 카페(그린다향)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회원들이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운 국화 분재 총 18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보성군국화연구회 회원 23명의 작

품 160여점과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참여한 15명의 작품 20여점, 총 180여점이 전시된다. 석부자, 묵부자, 일반작 등은 일반 화분에서 이른 봄부터 길러 분재로 옮겨 심고, 꽃을 피우기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해 관리해야 나오는 작품이다. 보성군국화연구회 진아라 회장은 "군민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국화로 위로하고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성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 키위' 지리적표시제 등록

보성이 주산지인 '보성 키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됐다. '보성 키위'는 알이 크고 색깔이 선명하며 당류 함량이 높아 키위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강한 특성이 있다.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인 보성은 기후가 온화해 연간 4500가량의 키위를 생산한다. 보성군은 2019년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으며, 현지 확인과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4년 만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적극 확충 나서

내년 개원 2곳 운영자 모집...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보육 환경 개선

광양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보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광양시는 2023년 상반기 신규 설치 예정인 동문다이스트, 세미존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내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영자는 11월 중 공개모집 후 광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능력과 재정 능력 등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맡으며,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다. 시는 올해 확충 목표로 하는 4곳 중, 지난 8월 말 국공립 광양영무예다움어린이집을 기설치했고, 11월 중 국공립 광양센트럴하이어린이집도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 등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복지부 지원이 확정돼 올해 중 세종어린이집, 라온노르웨이숲어린이집

2곳 역시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23년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동문다이스트, 세미존서희스타힐스, 푸르지오더센트럴 단지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행사와의 협의, 광양시의회 민간 위탁 등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회업 광양시 교육보육과장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며 "남은 2개월 동안 3곳의 국공립 개원도 빠르게 추진하고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 내 영유아, 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집 0-1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 운영하고 식판 세척 소독비와 인덕션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정책사업 추진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2021년에는 보육정책 관련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4일 이상철 곡성군수와 지역 민관산학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 출범식이 열렸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민관산학협력단 출범 "소멸위기 극복"

18개 기관·사회단체 참여 곡성군민들이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뚝뚝 뚫었다. 곡성군은 최근 행정 교육 산업을 아우르는 민관산학협력단 출범식을 갖고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산학협력단 구성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과 지역소멸 위기극복 공동 대응을 위한 민선 8기 이상철 곡성군수의 최우선 공약이다. 협력단에는 행정, 교육, 산업, 농업, 청년, 보육 등 민관산학을 대표하는 총 18개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협력단은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인공, 교육, 일자리·청년·주거, 스마트팜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전략 산업과 공동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협력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

육지원청, 전남과학대학교, 전남조리과학고, 미래교육재단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한다. 산업 분야는 NH농협은행, 육과농협,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KTC 곡성지사, 농공단지협의회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스마트팜 육성에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군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협의회, 이장 연합회, 농업, 청년 조직 등 지역의 기관사회단체는 다양한 협업 과제를 지원하고,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해 컨설팅을 맡는다. 협력단은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2024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 수립과 기금 사업 발굴에도 적극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곡성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공동체의 상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